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미래로 출항하는 외로운 탐사선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왜 교양교육인가?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학문도 극도로 세분화되어 가는 시대다. 전문 분야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런 지식을 주요자원으로 삼는 ‘지식산업’이 산업계의 새 경지를 열어가는 ‘지식기반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대학에서도 전공학과의 분화가 계속되는가 하면, 낯선 이름의 학과가 첨단분야에 새로 생기기도 한다.

이런 전문화 시대에 ‘일반보통교육’ (一般普通教育)으로서의 교양교육을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반시대적인 것은 아닌가? 아니다! 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지식사회를 보자. 정보화를 추동하는 디지털 기술의 속성상, 정보가 매우 용이하게 산출, 복제된다. 그 양이 천문학적으로 급증

하며, 정보의 유통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 ‘기원(起源)이 소실(消失)되고, 맥락을 벗어난’ 파편화된 단편적 정보들이 범람한다. 그런 가운데서 진정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게 된다. 정보의 효용기간도 급속히 단축된다. 지식사회에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이런 때일수록 엄청난 양의 정보 가운데서 적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 합리적 사고를 넘어 감성적인 것을 수용하는 정서적 감응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런 능력은 어떤 학업에서 어떻게 함양되나? 균

형 잡힌 교양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눈을 들어 밖을 보면,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공동체의 삶은 '유목화'된다. 지식의 파편화, 강고한 피라미드형 체계의 사회조직은 사라지고 작고 유동적 네트워크가 등장한다. 사회에 중심이 없어지고 경계가 흐려진다. 개인 간의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는 약화되고 피상화된다. 공동체적 유대도 약화, 와해하고, 개인의 고립화 현상이 심화된다. 이 유목화의 극대치가 곧 세계화다.

공동체의 삶이 이렇듯 유목화되는 격변의 와중에서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 자세다. 역사성과 사회성은 문화생활의 씨줄과 날줄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디서 얻어나? 이 또한 심화된 교양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대학교육 전체가 세분화된 각 학문분야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개방적으로 여러 학문분야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의 함양을 위해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향의 교육은 본래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이 점이 바로 대학교육 전반에서 교양교육이 새로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특수한 전문

직업교육'에만 열중해 왔지, 교양교육을 토대로 한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은 등한시해진 것이 사실이다. 강도 높은 산업화를 통해 급속히 국가사회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문물을 가능케 하는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 내에 대폭적으로 학습-수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화에서 요구되었던 '특정 분야의 기성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각 전문 분야들의 지식도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오늘의 문화사회적 상황은 여러 문제들이 서로 결합되어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오늘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도, 기술도, 산업도 분화, 전문화보다는 융합, 종합화의 길을 가야 더 큰 산업적 성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각 전문분야들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지적 연결지평'을 제공할 수 있는 학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바로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서, 그 자체 고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21세기의 정보사회에서는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교양교육의 참뜻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왜곡된 통념이 지배하는 대학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이다.

‘교양(교육)’이란 근대화 초기 일본에서 독일어의 ‘Bildung’을 옮긴 말인데, 그 본래 어의는 “단적으로 인간의 인간다움 그 자체만을 위한 주체적 자아의 형성(호볼트)”을 뜻한다. 호볼트에 따르면, 자신을 형성하고자 하는 요구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것으로 그 이상은 결국 인격의 완성이다. ‘교양교육’의 이념은 그 후 영어권에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전개됐는데, 오늘의 ‘교양교육’은 이들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교육’이란 인간은 각자가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 나아가는 미정형의 ‘자유인’이라는 전제 아래, 문자 그대로 직업적 목표나 혹은 특정 사상 및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됨’ 자체의 고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그 내용은 자연히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자유교육이 직업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대비된다면 ‘일반교육’은 ‘전공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대비된다. 전공교육이 특정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화된 특정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면, 일반교육이란 그

러한 전문인이기에 앞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이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인으로 교양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교육과 자유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 상호지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서 ‘교양교육’의 두 속성, 두 측면, 아니 두 실체라 할 수 있다. 개방적 자기형성의 ‘자유인’과 보편가치를 향유하는 ‘문화인’의 이념이 내포적 의미만 다를 뿐, 교양교육의 외연에 함께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통념

교양교육은 이렇듯 대학에서 전공교육, 특히 직업지향적인 전공교육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내실을 갖는 것으로, 전공교육과 더불어 대학교육을 떠받드는 양대 축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교육 중심’으로 행해져온 한국의 대학사회에는 교양교육에 대한 왜곡된 다음과 같은 통념들이 대학교육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내용을 수준을 낮춰 가르치는 초보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진정한 지적 성장을 돕는다기보다는 상식의 폭을 넓히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2) 교양교육은 기껏해야 전공학업을 위한 예비교육으로,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기초교육’이다.

(3) 교양교육은 비학술적인 취미생활 차

원의 '여분' 교육으로 일상생활의 운행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하면 좋지만, 아니해도 되는 것'이다.

(4) 교양교육에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상의 요구나 사회적 유행의 요구, 나아가 대학 당국이나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요구가 수용될 수도 있다.

이들 통념에 대해 논평해 보자:

① 교양교육은 전공교육보다도 더욱 더 넓고 깊은 학술적 탐구의 성과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보편교육'의 이념에 부응하려면 특히 '기초학문분야'의 '넓고 깊은' 탐구성과가 그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② 위에서 말했듯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다. 물론 '기초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교양교육의 내용 또한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기초교육이 교양교육에서 단적으로 배제될 수 없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양교육으로서의 '기초교육'은 그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교양'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희석되고 변질되어 세속적 의미로 통용될 때 생기는 오해다. 백화점이나 노인정에서 펼쳐지는 '교양 강좌'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④ 권위주의적인 비민주적 리더십이 자행

했던 반대학적 처사다. 이러한 오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로 잔존한다.

교양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양교육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화시키려면, 어떤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할까?

첫째,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은 교양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정비다. 대학교육 전체가 기초능력교육,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교육으로 정향을 새로이 하는 것과 궤를 함께 하여 교양교육의 내용을 쇄신해야 한다. 이때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은 학문적 가치의 보편성을 고려해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성과로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¹⁾

기초학문분야의 고전적인 연구 성과가 교양교육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각 전공영역으로 구획된 폐쇄된 연구영역에 갇힌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문지식교육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뜻에서 일반교양교육의 의의를 살리자면, 연구도 개방

¹⁾ 문제는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를 일반 교양교육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데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전공교육과 기초학문이 참여하는 일반 교양교육을 연계시키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분야 각 전공 교과과정에 교양과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전공과목들을 선별 혹은 개발하여 전공과 교양 영역에서 '중복 설정' (Double Listing)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적 복합적 시각을 갖고 진행되어야 하고 그 성취물이 교양교육에 투입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새로이 등장하는 문화사회적 문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성과나 이질적인 학문분야들을 가로지르며 주어진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논구하여 얻는 연구성과도 교육내용으로 수용해야 한다. 즉 현대문명, 환경,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신과학 등 새로운 주제영역을 탐구한다든지, 예술과 기술, 철학과 경제, 문학과 정치, 심리와 법 등 이질적인 문제영역에 대한 복합적 연구를 한다든지 하여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선진화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대학교육 전체에서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30%는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에서 전공을 택하는 학생에게는 이 비율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양교육을 학문적 수준이 낮은 초보적인 교육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상 저학년에서 완료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상선해야 한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므로 오히려 고학년에서 전공교육과 나란히 시행되어야 그 교육적 성과가 클 것이다.

셋째, 교양교육의 강화가 대학교육 전체의 질을 고양시키려면, 학사과정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학업으로 '교양'을 심화시키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대학원 과정(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도록 교육구조를 성층화해야 한다. 이의 실행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적어도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의 전공을 택하는 학생에게 기초학문 분야에서 또 하나의 전공을, 혹은 부전공으로 택하도록 의무화하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으로 중요한 교무행정적 지원책을 대학별로, 나아가 범대학적으로 강화, 실행해야 한다: 1) 대학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2)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진을 구성하는 일이 그 첫 과제다. 대학 밖에서 교양교육의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는 3)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양교육연구'라는 독자적인 별도의 연구지원 항목을 설치하여 교양교육에 종사하는 교강사들을 지원, 격려하는 것이 긴급하다. 나아가 4) 대학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교양교육의 충실도를 대학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하고, 5) 일반 기업체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교양교육의 수준을 판단의 중요 척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범대학적 교양교육진흥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학과'는 교수들에게는 학문공동체의 성체이고, 학생들에게는 대학생들의 동지이다. 학과는 그동안 대학인에게 그만큼 불가결한 조직이었다. 따라서 '학과'를 벗어나는 일, 아

니 ‘학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학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어느 특정 학과의 일이 될 수 없는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일에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대학환경을 생각해 볼 때, 교양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띠고 지난 여름 창립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어려운 과제 앞에서 서 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많다.

첫째, 대학 내외에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다. 정보사회의 시대상이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비추어 볼 때, 교양교육이 전에 없이 중요해졌음을 대학 내외에 널리 알리고 승복시켜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들의 자세와 노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과영역별 워크숍이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대학이나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책결정자들이 교양교육의 심화, 확산에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의 위상, 교양교육과정의 구조, 교양교육과정의 이수체계, 교과목들의 분포,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유무, 전임 교수진의 교양교육 담당 정도, 교양교육 전담 교수진의 유무 등등, 현재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교양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 자료를 모두 공유하도록 준비해야 한

다. 이를 토대로 거기에서 서로 배울 뿐 아니라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도록 유도하고 권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일종의 “아르카이브”를 구축하여 각 대학의 연구성과 및 경험 내용을 공유,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학교육 전체의 수준을 격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에서 참된 의미의 바람직한 교양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하는 일도 시도해야 한다. 이 일에는 1) 대학의 유형별로 전체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을 제시하는 일; 2) 역시 교육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람직한 교양교육의 영역구분 및 구조, 이수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표준적인 ‘교양교육과정’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일; 3) 나아가 그 교육과정에 정합적인 다양한 새로운 교과목들을 개발하는 일; 4)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일; 5) 교양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평가를 시도하는 일 등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 일들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각 대학의 교육담당자들이 같은 연구를 하도록 무무형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

선구적 식견을 갖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나 기관장들이 횡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교내에서의 무관심을 이겨내고 교양교육에 활

력을 넣고자 결성된 모임이 10여년 역사의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다. 좀 더 학구적인 연구활동에 힘을 쏟아 그 성과를 축적하자라는 뜻에서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창립된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마침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범대학적 교양교육진흥기구'로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립된 것은 앞의 두 기구가 그간 기울여온 노력이 중간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 교양교

육에 대한 열의, 교양교육 시행의 노하우, 교양교육에 참여하는 교강사의 규모 등에서 대학마다 편차가 큰 것을 감안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자는 것이 이 기구 설립의 근본 동기다. 가능한 한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동참과 연대를 통해 한국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이루자는 뜻이 널리 호응을 얻기 바란다. 지금은 '외롭게 미래로 출항하는 탐사선'이다. 대학인 모두의 뜨거운 성원을 빈다.

필자소개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손동현은 현재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 학부대학 학장, 한국철학회 회장, 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디지털 유목

시대의 대학교육, 인문교육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구조 혁신방안,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등이 있다.